

클리블랜드 '새 역사' 추신수

창단 110년만에 첫 2년연속 20홈런·20도루·3할 타율 ...내달엔 AG 우승사냥

'추추트레인' 추신수(28·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타율 3할과 20홈런·20도루 동시 달성이라는 금자탑을 세우고 정규 시즌을 마쳤다.

매니 악타 클리블랜드 감독은 전날 추신수가 타율 0.300에 도달하자 기록 유지를 위해 최종전에 내보내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고 이날 약속을 지켰다. 정확히 타율 0.300을 맞춘 추신수는 홈런과 도루를 각각 22개씩 수확했고 타점 90개를 거뒀는데 2005년 메이저리그 데뷔 후 홈런, 도루, 타점 모두 한 시즌 개인 최다 기록을 세우고 시즌을 끝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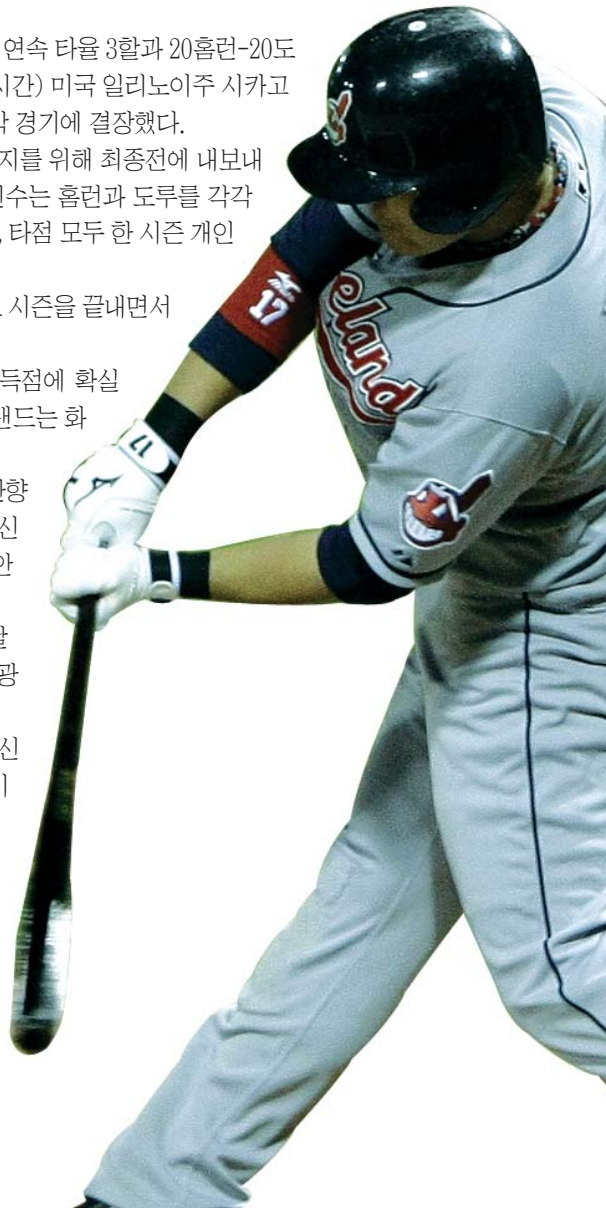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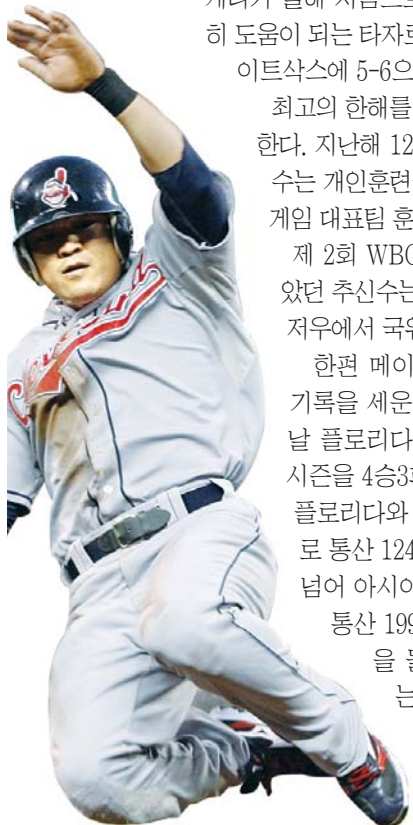
또 2년 연속 호타존족의 상징인 20-20을 달성한 데 이어 2년 내리 타율 3할로 시즌을 끝내면서 정확성과 파워를 겸비한 타자로 바리케에 확실히 뿌리내렸다.

게다가 올해 처음으로 출루율 4할(0.401)을 넘기면서 팀 득점에 확실히 도움이 되는 타자로 공인받았다. 추신수가 빠진 클리블랜드는 화이트삭스에 5-6으로 겨 69승93패로 시즌을 접었다.

최고의 한해를 보낸 추신수는 오는 10일 오후 금의환환한다. 지난해 12월 이후 10개월 만에 고국을 찾는 추신수는 개인훈련을 한 뒤 25일 시작되는 광저우 아시안 게임 대표팀 훈련에 합류할 예정이다.

제 2회 WBC와 베이징 올림픽에서 태극마크를 달았던 추신수는 다시 한 번 대표팀 중심타자를 맡아 광저우에서 국위 선양에 나서게 된다.

한편 메이저리그 아시아투수 최다승(124승) 신기록을 세운 박찬호(37·피츠버그 파이리츠)도 이날 플로리다 말린스와 경기에서 볼펜을 지키고 시즌을 4승3패 평균자책점 4.66으로 마쳤다. 2일 플로리다와 경기에서 3이닝 동안 무실점 패투로 통산 124승째를 수확, 노모 히데오(일본)를 넘어 아시아 최다승 투수로 우뚝 선 박찬호는 통산 1993이닝을 던져 내년이면 2000이닝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된다. 피츠버그는 2-5로 패했고 57승105패라는 30개 구단 중 최악의 성적으로 2010년을 마쳤다.



탱크 최경주 스파이더맨 변신

최경주 선수가 카밀로 비에가스과 함께 4일 옹인레이크사이드에서 열린 신한은행 희망나눔 스킨스게임에서 스파이더맨 자세를 취하며 익살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다. 한국프로골프투어(KGT) 신한동해오픈에 출전했던 최경주(40), 카밀로 비에가스 등은 이날 스킨스 상금 1억 5000만원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에 기부했다.

KBO 28억원 흥행 대박 '함박웃음'
삼성 "지친 곰·거인 누구든" 환영

프로야구 준PO 오늘 '끝장 승부'

곰과 거인의 '끝장승부'에 삼성과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쾌재를 부르고 있다. 2승2패로 승부를 가리지 못한 두산 베어스와 롯데 자이언츠가 5일 잠실구장에서 준플레이오프 최종전을 치른다. 롯데가 2연승을 달리며 심겁게 준플레이오프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였지만 두산이 극적인 뒤집기에 성공하면서 5번째 대결까지 벌어지게 됐다.

승자를 기다리는 삼성과 입장수입을 세고 있는 KBO 입장에서는 두 팀의 혈전이 반갑지만 하다.

준플레이오프가 최종전까지 가면 플레이오프를 준비하는 삼성은 한층 더 느긋해졌다. 어느 팀이 맞수가 되던 5차전까지 가는 총력전으로 두산과 롯데 모두 전력 출혈이 발생했다. 여기에 최종전까지 승자가 이어지면서 준플레이오프 승자는 단 하루 휴식을 취한 뒤 삼성의 안방으로

가서 7일부터 플레이오프에 나서야 한다. 3일훈련 1일휴식으로 전력을 비축해둔 삼성은 '실전감각'만 회복된다면 상대팀보다 절대 유리한 고지에 서서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 전망이다.

KBO도 돈 잔치를 벌이게 됐다. 4차전까지 벌여들인 관중수입은 22억 1000여만원. 5차전까지 치러지게 되면 준플레이오프 입장 수입만 해서 28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올 시즌 정규리그에서 역대 최다 관중 동원에 성공한 KBO는 지난해 SK-두산의 플레이오프 3차전 이후 포스트시즌 14경기 연속 매진 행진까지 계속되면서 흥행대박을 맞았다.

한편 야구팬들의 관심이 집중된 양팀의 끝장 승부를 위해 두산과 롯데는 베테랑 김선우와 송승준을 선발로 투입한다. 마운드 총력전이 예고된 가운데 이번

시리즈에서 제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양팀의 중심타자들이 마지막 1승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두산의 톱타자 이종욱과 주장 손시헌이 이번 시리즈들어 4할대의 타율을 기록하며 팽타를 휘두르고 있지만 '타격기계' 김현수와 4번타자 최준석은 이번 시리즈에서 1할대의 타율을 기록하는 데 그치고 있다.

롯데 이대호는 2차전 결승 홈런포를 쏘아올리며 승리의 주역이 됐지만 안방에서 치러진 3·4차전에서 7타수 무안타로 부진했다. 삼진은 3개나 기록했고, 3차전 대량실점의 빌미가 된 실책까지 범했다. 팀의 분위기 메이커 송승준도 결정적 기회에서 헛방망이질을 하며 0.118의 타율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물러설 곳 없는 최후의 승부에서 어느 팀의 중심타선이 불을 뿜느냐는 5차전의 최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AG야구 金 특명 "대만을 잡아라"

조범현 대표팀 감독 직접 대만 방문 전력 분석 나설 듯

예선 B조서 1위해야 준결승서 강적 일본과 대결 피해

아시아게임 정상에 도전하는 야구대표팀이 반드시 넘어야 할 대만과 조 1위 다툼을 벌인다.

대한야구협회가 4일 오는 11월 광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의 조 편성 결과를 발표했다.

8년 만에 아시안게임 정상탈환을 노리는 야구대표팀은 홍콩, 파키스탄 그리고 우승 다툼이 유력한 대만과 B조에 편성됐다. 일본은 홈팀인 중국, 태국, 스리랑카, 몽골과 함께 A조에 묶였다.

총 9개국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KIA 조범현 감독을 사령탑으로 해외파 거포 추신수(클리블랜드 인디언스)·김태균(자바 롯데)을 비롯해 프로야구 최고의 선수들로 대표팀을 꾸려 금메달에 도전한다.

한국 대표팀의 최대 난적은 역시 프로선수들을 앞세운 대만이다.

지난달 발표된 대표팀 명단에서 대만의 핵심 전력인 투수 천웨이(주니치)과 귀홍치(LA 다저스)가 빠져 일단 한숨을 돌리기는 했지만 일본과 미국에서 활약하는 해외파 13명이 포진해 한국과의 대결을 준비하고 있다.

금메달이 목표인 한국입장에서는 A조 1위를 차지하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번 대회에서는 각 조 1·2위가 준결승에 진출, A조 1위와 B조 2위 그리고 A조 2위와 B조 1위가 크로스오 맞붙어 결승 진출을 가리게 된다.

일본이 A조 1위가 유력한 만큼 한국에게는 B조 1위로 준결승에 올라 상대적으로 수월한

A조 2위를 만나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다.

조범현 대표팀 감독은 "조 1위로 올라가면 준결승에서 중국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 일본보다는 부담이 덜한 상대이고 결승에서 대만과 다시 만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대만과의 예선전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한다"며 "5일 대륙간컵(23일 대만에서 개막) 대만 대표팀 명단이 발표되는 만큼 아시안 게임 참가 선수들의 대륙간컵 참가 여부에 따라 직접 대만을 찾아 전력 분석을 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회에 참가하는 9개 팀은 11월13일부터 17일까지 조별리그를 갖는다. 준결승은 18일 오후 1시와 8시에 예정되어 있다. 대망의 결승전은 19일 오후 1시에 시작된다.

아시아게임 대표팀은 25일 부산 사직구장에 모여 첫 훈련을 갖는다. 대표팀에 선발된 KIA 3총사 윤석민·양현종·이우규는 8일부터 팀 마무리훈련에 참가해 몸담들기에 들어간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양키스 28번째 우승?

팀당 162경기씩 대장정을 마친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가 7일(한국시간)부터 포스트시즌을 시작한다.

아메리칸리그(AL)와 내셔널리그(NL)에서 각각 지구 우승 세 팀과 와일드카드 한 팀 등 네 팀이 출전, 디비전시리즈(5전3선승제)를 치러 16일부터 열린 리그 챔피언십시

리즈(7전4선승제)에 진출할 두 팀을 가린다. 여기서 이기는 팀이 리그 챔피언 자격으로 28일부터 치러질 월드시리즈(7전4선승제)에서 맞붙는다.

AL에서는 탬파베이 레이스(동부지구), 미네소타 트윈스(중부지구), 텍사스 레인저스(서부지구)가 지구 우승을 차지했고 작년 월드

MLB 가을축제 7일 시작

시리즈 우승팀으로 통산 28번째 우승에 도전하는 뉴욕 양키스가 와일드카드를 가을 잔치에 출전한다. 정규 시즌 최종일인 4일에서야 진출팀이 확정된 NL에서는 필라델피아 필리스(동부지구), 신시내티 레즈(중부지구),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서부지구),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일드카드)가 초대받았다.

Advertisement for Feel Motel featuring images of hotel rooms and promotional text: '신축건물에 우아하고 품격있는 객실!', '1객실 1주차 도심속 정통무인텔!', '무인텔 Feel Motel', '062) 523-7789',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105-1번지 현대백화점 옆 LG전자 뒷편', 'www.feelmotel.kr'